와이로 (蛙二鷺)

(막11:11~19)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와이로(蛙二鷺)>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와이로(蛙二鷺).
'와이로'라는 말은 한자로 '회뢰', 뇌물 회(賄) 뇌물 뇌(賂)자를 일본말로 읽을 때 '와이로'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도 똑같은 음을 가진 똑같은 뜻의 말로 '와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와(蛙)자와 두 이(二)자 그리고 해오라기 로(鷺)자를 써서, 혹시 뭐 또 어떤 분들은 포로 로(擄)자를 또 쓰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와이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옛날 책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조선 때 숙종께서 암행을 자주하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변복을 하고 궁 바깥으로 나가서 살펴보는 그런 암행을 자주 하셨는데, 어느 날 늦은 밤 암행의 발걸음이 남산골에 이릅니다.
남산골에 이르렀는데 늦은 밤인데 불이 켜져서 선비가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숙종이 몰래 가서 그 선비가 책 읽는 문 앞에 다다랐는데 문이 열려있어요,

조금.
그래서 열려있는 문틈으로 바라봤더니 벽에 이런 한자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한당연 무이와’ 유일하다 할 때 유(唯) 자, 한탄하다 할 때 한(恨)자.
내가 오로지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당연 그 당시에 무이와(無二蛙), 개구리 두 마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개구리 두 마리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겁니다.
숙종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뜻은 알겠는데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선비에게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선비가 하는 말이 ‘어느 옛날 산골에 새들이 함께 모였는데 꾀꼬리가 모였고 부엉이가 함께 모였고 뜸부기가 모였답니다.
그것들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잘 한 것 같아서, 내가 일등이다 내가 일등이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해오라기라고 하는 놈을 심판관으로 데려다 놓고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내일이면 시합이 벌어져야 돼요.
열심히 꾀꼬리와 부엉이가 노래연습을 하는데 이 뜸부기라는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노래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뭐냐, 해오라기가 개구리를 잘 잡아먹는 것을 알아채고는 개구리 두 마리를 심판관이 될 해오라기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 당일이 되서 노래를 하는데 꾀꼬리가 노래를 멋지게 불러갑니다, 근데 갑자기 땡~ 합니다, 중간에.
‘목소리가 아름답지마는 참으로 요사스럽다!’
부엉이가 노래를 합니다, 잘 부릅니다, 땡~ 칩니다. 중간에.
‘목소리가 참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맛이 있지마는 한편으로 들어보면 음탕한 기운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제 드디어 제일 못하는 뜸부기가 부르는데 끝까지 듣고 있다가, ‘과연 쾌활하고 쾌활하고

너의 노래가 장부의 노래 같도다, 일등!'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알아봤더니 (부엉이하고 꾀꼬리가 하도 억울해서), 아! 이놈의 뜸부기가 개구리 두 마리를 해오라기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와이로, 해오라기 로(鷺) 아니면 사로잡을 로(擄)
그래서 개구리 두 마리로 해오라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게 와이로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축복을 관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와이로 믿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와이로 신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지내시는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나귀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콜럼버스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 다윗의 나라라는 것은 신대륙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지만(우리의 마음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고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으뜸 경쟁으로 모든 분야 모든 삶이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지만, 전혀 다른 상상도 하지 못할 다윗의 나라가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임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예기에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냥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근데 주님께서 성전정화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성전정화를 하신다는 것은, 성전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뭉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의미가 완전히 퇴색해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성전정화를 통하여 성전의 본래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성전정화사건을 통해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왜 일어났느냐? 모르잖아요?
성전의 본래의미를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선민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라고 하는 포괄적인 행위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기도, 그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선민들의 하나님 숭배의 행위가 바로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

제사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제사도.
제사를 드릴 때의 기본정신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참 기도가 또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십자가 사건이 성전과 연결이 되는 것은 성전 속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 터로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장사거리로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돈은 로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됩니다.
그 환전하는데 차액을 부당하게 착취를 해서 절반은 장사꾼들이 갖고 절반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또 양과 재물들 비둘기도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제사장들이 다 퇴짜를 놔버립니다.
정성스럽게 갖고 온 걸 다 퇴짜를 놔버리면, 장사꾼들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양이냐,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에서 나오는 양을 사도록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런 타락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전의 본래의 의의가 들어있는 제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이 제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제사의 의미가 십자가로 옮겨지니까…
유대인의 성전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다른 종교의 제사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제사는 쉽게 말해 와이로입니다, 와이로.
뜸부기가 노래자랑 대회에서 꾀꼬리와 부엉이를 제치고 일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야심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래 실력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론 안 됩니다.
그런데 일등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해오라기에게 개구리 두 마리를 갖다 주고 와이로를 매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뜸부기와 마찬가지로 내 힘만으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 신, 불상, 조상신 이런 귀신들에게 이런 우상들에게 와이로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차이가 커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불안하고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봉사, 충성, 헌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와이로에요, 와이로.

그럼 유대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사업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 사업을 사랑하니까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언제나 소원은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생겨나요.
마치 서해안 갯벌에 그 진흙탕 속에 갯지렁이가 파고들어서 숨어있듯이 내 마음 안으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바라는 게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갯지렁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더러운 지렁이가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친해지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보다도 더 첫 번째 현실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 세상 삶에 대한 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소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갯지렁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때 갯지렁이가 들어온 마음 전체를, 양을 잡아다가 그 양과 내가 동일시되는 존재로 믿으면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될 제 마음에 사업에 대한 소원이 들어와 있고, 자식에 대한 소원이 들어와 있고 온통 마음 안에 이 세상 삶에 대한 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양을 데리고 왔으니 이 양과 이렇게 마음이 세상 소원으로 침투되어 있는 내가 동일시되는 것으로 믿겠사오니, 양이 타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죽는 것으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를 마음에 사랑함으로서 그 사랑 때문에 걱정도 하고 소원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한 그런 나 자신, 하나님 이외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을 죽여 버리는 것이 바로 유대의 제사였다는 거예

요.
반면에 일반 종교의 제사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대로 뜸부기처럼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신에게, 우상에게 와이로를 메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들의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소원에 침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럽혀진 내 마음, 하나님 한 분만 들어왔어야 될 이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옴으로서 더럽혀진 이 나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타 죽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세상의 소원이 들어와서 세상 것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 버린, 이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양을 와이로로 드립니다, 송아지를 와이로로 드립니다, 애바 곡식의 가루를 와이로로 드립니다.'
이렇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 제사를 관장하고 그 선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소원, 나도 좀 부자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제사장이지만 돈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어 버렸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주의도 왜 율법주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히 모셔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을 갖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달라' 하는 존경을 얻고 싶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 와이로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이로는 드린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와이로라는 말이 개구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16장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겁니다'
나도 지금 세상에서 잘되기를 위한 소원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맞춰주잖아요?
더러운 영이 짐승과 같고 마귀 사탄의 왕인 용과 같은 그런 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의 이야기들이고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러움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바치고 있다.
세상에서 내가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
이게 바로 와이로요, 개구리를 바치는 거고 더러운 영의 개구리를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성전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 오면서, 나 개인이 장소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주님과 동일시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에 소원으로 침투되어지는 내 마음이, 죽는다는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러라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까지 하나님 말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 질 것이고, 그리고 살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것이지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로 옮겨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어느 사람에 대한 사랑, 어느 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소원이 생기고 사랑하면 소원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소원이 생겨서, 마치 갯지렁이가 갯벌을 뚫고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소원으로 뚫고 들어와졌을 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아~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뭔가 마음이 부족하고 허해서, 그걸 이 세상의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차 한대 생겼으면 좋겠다, 아파트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구나, 허한 구석을.
이건 잘못 된 것이다, 내 마음이 허하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한 소원이 들어있구나.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라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내 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세상 소원에 찌들었던 내 마음이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할 때 승천해서 놀랍게도, 내가 지금 몸이 살아 있는 이 시간 이 당시에도, 내 마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내 배우자보다 내 가족보다 더 확실한 존재요 더 우선적인 현실로 느끼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되어 행복하게 되어 가는 동안에, 이 몸이 처한 이 세상은 다윗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경쟁이 없고,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먹고 산다는 그런 저주가 없는, 그런 세상이 내 몸이 있는 이 세상에 열려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아지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닌 상태로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 마음에는 내일 죽어도 한없는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도 있고, 폭풍우 속에서도 풍랑 만난 배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돌에 맞아도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와이로 신앙, 정화작업의 대상이에요.
와이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와이로 신앙입니다. 심청이를 사공들이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도, 인당수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 와이로입니다.
바다귀신이 심청이 먹고 잘 봐줘서 풍요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와이로입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불상 앞에 갖다 바치는 것도 와이로입니다.
다~ 와이로로 살아요, 다 와이로로 살아.
그러나 이 와이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와이로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전의 본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깨닫고 무조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

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다른 것 조금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가,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소원이 자꾸 생길 때마다, 아~ 갯지렁이가 더러운 갯지렁이가 내 마음을 파고 들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와이로 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그 갯지렁이 같은 소원대로 이끌려가지 말고, 갯지렁이에 의해 침투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 몸이 남아 있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임하면서 다윗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인도되어 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기도는 십자가 기도여야 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와이로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와이로 신앙을 밀어낼 때, 내 마음은 천국에 앉힌바 될 것이고, 내 몸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다윗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이 와이로 신앙, 십자가 복음으로 척결하게 하시고, 마음은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몸은 이 땅에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다윗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